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2008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여단체 공모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03-03 11:18]

3.3(월)~3.12(수)까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신청 받아, 3월말 선정, 총 160백만원 지원 예정

부산시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생산적 문화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2008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펼치고자 오는 3월 3일(월)부터 3월 12일(수)까지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민, 오지학교·보호시설·학교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및 정신병자수용 병동,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 평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문화단체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것을 2004년부터 부산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부산소재 민간문화예술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1억 6,000만원(교부세 8000, 시비 8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소재 민간예술단체로서, 부산시가 지정한 횟수와 활동지역 공연이 가능한 단체이면 된다.

단. 문예진흥기금·시비 등으로 기 지원 결정된 행사, 학교 동아리, 시·구·군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종교목적의 행사, 부산시민이나 부산지역을 수혜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3월 3일(월)부터 3월 12일(수)까지 부산시청 문화예술과(051-888-3462)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단, 토·일요일 제외)를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지역주민 등 관람층의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한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음악·국악·무용·연극분야 등 55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문화소외지역의 노인·어린이·장애인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교정시설 재소자 등을 직접 찾아가 총 213회 공연에 3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98&article_id=0001945933

 인쇄하기

닫기